

나와 다름 인정하니 화해와 평화 넘치네

진명 스님의 삼소회 성지순례기



티벳대학에서 달라이라마(가운데) 친견후 기념 촬영.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진명 스님.



로마 성프란치스코 성당의 종교대표자모임 조 각상 앞에서.



런던 무슬림 사원서 영국 무슬림 대표격인 두 바얀 사무총장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 동산에서 삼소회 기도문을 읽고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각기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모인 삼소회 일원으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 톨의 씨앗이 되자고 열원하며 기도한지 어언 5년. 시절인연이 도래했는지 그토록 열원하던 세계 성지순례 일정을 계획하며 지난 동안겨 내내 바쁜 시간을 보냈다.

2월 5일 드디어 원불교 성지인 영광 영산성지 순례를 시작으로 삼소회 일행은 18박19일 일정의 성지순례 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불가족친민을 위해 준비한 문구와 약품 상자를 화물로 부치고 나니 피로가 겹쳐왔다.

인천 공항을 출발한지 10시간만인 새벽 2시반경 인도 콜카타에 도착했다. 이어 다시 공항대합실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기다린 후 첫 해외순례지인 바라나시행 비행기를 탔다. 첫 순례지 일정에서부터 이번 순례 여정이 고행 중에 고행임을 실감하게 했다.

순례단은 인도 바라나시 짜르나트 부처님 초전법륜지 근처에 위치한 한국 사찰 녹야원에 여장을 풀었다. 만공 스님이 주지인 한국 사찰 녹야원에는 공양주 보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행인 선재 스님과 수녀·교무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공양을 준비했다. 이 시간은 종교를 초월해 어떤 이견도 없는 화합 그 자체였다.

이번 순례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종교를 존중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생생한 화합의 시간이었다. 언제 또다시 수녀 신분으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할 것이며, 또한 부처님 제자로 예수님 성지를 언제 순례할 수 있을까. 다시 열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한 일행은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방생” 외치며 물고기 팔던 청년

이튿날 새벽 갠지스강가에 도착했지만 자욱한 안개는 한치 앞도 허락하지 않았다. 빨라하는 가트(Ghat)에서 빨라감을 두드리는 사람들, 납너노스 할 것 없이 폭우하는 사람들이 뒤섞인 가트를 바라보며 화장터로 향하는데 계속 작은 쪽배를 타고

따라오며 또렷한 발음으로 “방생! 방생!”이라 외친다. 작은 봉지에 담긴 물고기를 내미는 젊은이에게 내 옆에 앉아 생소하게 바라보던 수녀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영어로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그 생선을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사 줄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고요하게 화장터로 향하던 우리 일행은 파안대소 할 수밖에 없었다.

갠지스강가에 흠뻑 젖은 웃음소리와 함께 안개도 걷히고 우리는 배에서 내려 화장터로 이동했다. 시신이 한 구 갠지스강물에 적셔지고 화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종교의 다름을 떠나 너나 할 것 없이 속연해졌다.

달라이 라마의 깊고 환한 미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초전법륜지 대담 앞에서 칠정례에 이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탐돌이를 하는 동안 등 뒤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진지하긴 했지만 대열 선두에 선 나라는 참으로 공명했다.

중간 중간에서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스님과 교무님들의 발걸음을 따르는 수녀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파란 잔디 위로 석가모니불 정군을 하며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춰 큰 나무아래에 자리했다. 품이 넓은 나무 그늘 아래 자리해 깊은 침묵명상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외국인 순례자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찬탄했다.

우리 순례자 일행중 스님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린 2월 9일,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는 날이다. 달라이 라마를 만나 삼소회와 성지순례에 나선 뜻을 소개하자 달라이 라마는 서슴없이 말했다. “세계평화는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는 기회가 됩니다. 평화 없이 전쟁만 있다면 인간 생명은 끝입니다. (중략) 모든 종교인들은 평화를 지키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1975년경 화합 운동을 시작하셨다며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이 머



인도 녹야원에서 평화명상에 든 삼소회 순례단. 이들은 세계 성지순례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자리를 넓히며 하나가 됐다.

릿속을 시원하게 했다.

첫째는 학문적으로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서로 교환해야 하며, 둘째는 다른 전통을 가진 수행자들이 만나서 깊고 내면적인 영혼의 체험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삼소회처럼 단체로 다른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당신도 수차례 개신교의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과 파타마를 방문했을 당시의 일화를 들려줬다. 넷째는 과거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모임처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은 입장에서 한 가지(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삼소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을 보니 고맙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전통과 철학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념과 존경이라고 강조했다. 신앙은 자신의 것,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존경은 모든 다른 전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것이 종교적 평화를 가능케 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신앙은 자신의 것이고 자기 종교 안에 전통은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지만 존경은 모든 다른 종교와 전통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 종교에 빠져 있기 쉬운 중요한 말이다. 깊고 환한 목소리로 들려준 달라이 라마의 말씀은 우리 삼소회 성지 순례하는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큰 가르침이 됐다. 자기 종교의 교의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단단한 벽을 순례 길에서도 허물지 못하는 몇몇 일행은 또 다른 동행의 여

을 마치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적의 무기처럼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만들었다.

왜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나와 다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안다면 다름은 감사함의 대상이지 않을까. 하지만 순례의 여정이 더해갈수록 서로 다른 의식과 생활관습에서 비롯되는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고 그 작은 감정의 골은 타 종교의 성지를 순례하며 가져야만 할 마음 자세와 예의를 잃어가게 했다.

울고 웃고 투닥거린 19일

달라이 라마의 그 깊은 영혼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드갯가 대답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를 거부한 어느 일행의 모습에서 자기 것 외에 어느 것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좁은 마음자리를 발견하며 과연 내 자신은 어떤지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 부처님의 성지에서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영국 성공회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13일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버밍엄에 위치한 무교회 주의자 케이크 공동체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침묵명상에 틀기도 했고, 캔터베리 대성당과 런던 중심가에 자리한 웨스트 민스트 사원이며 세인트 폴 성당에서 성공회에 대해 알리고 귀를 열었다. 그 어마어마한 사원 안에 역사 속에 묻힌 무덤들을 돌아보며 부처님 성지나 법당에서 느끼지 못한 무거움을 느꼈고, 리젠트 파크 옆에 크고 웅장함으로 위엄을 펼치는 성공회 성당에 못지않게 당당하게 자리한 무슬림 사원서 영국에서 무슬림 대

표격인 두바얀 사무총장을 만나 무슬림 신자에 대한 편견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거의 순례 막바지인 2월 20일 로마에 도착했다. 그 다음날 성프란치스코 성인이 되고 자란 아시시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부처님 성지에서 그렇게도 넉넉함을 보이지 못했던 사람이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긴 설명을 하는 동안 다시 갈등이 수위를 높였다. 뿔가 터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편지 앞날 일행의 기운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소에서 그의 정신과 가르침에서 다 녹아 내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는지도 모른다. 동물과 자연에게 까지도 경계 없는 사랑을 나누었고, 철저히 무소유를 실천하셨던 성인이다.

갈등은 수행의 거울이 되고

아시아에서 돌아와 순례 여정 마지막 밤이 이슬하도록 우리는 울고 웃고 투닥거리며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마음자리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이번 삼소회 세계 성지순례 여정은 생생한 공부의 현장이었으며 종교화합을 위해 우리 종교인들이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크게 작게 부딪혔던 갈등이 오히려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수행에 좋은 거울이 되어주었다.

종교는 아집과 편견, 갈등과 독선으로 무장된 무기가 아니라 인류 사회에 이해와 용서 자비와 사랑을 펼쳐가는 든든한 도구임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前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물’ 진행자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심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신간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도안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강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동시인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와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쳐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한가운데로 뒤희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조계종 학림사 오동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혜, 교봉, 석봉, 관음,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혜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계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계적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남자를 위한 오동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 02)2004-8200(대), 02)2004-8225(출판부), Fax: 02)737-0696